

또 하나의 가을야구...무등기 사회인 야구대회 막 오른다



11~26일 토·일 함평야구장
무등리그 8팀·광일리그 8팀
26일 우승컵 놓고 마지막승부

1년을 기다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인들의 '가을 잔치'가 펼쳐진다.
광주일보와 전남문화가 주최하는 제15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가 11일 함평야구장에서 막을 올린다.
무등리그와 광일리그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리그별로 8개 팀이 우승을 향한 출사표를 던졌다.

11일 광일리그 4강 팀이 먼저 가려지고, 12일에는 무등리그 8강 승부가 펼쳐진다.
광일리그의 목포 블루제이스와 송원 블루제이스가 11일 오전 9시 대회 첫 승을 놓고 다툰다. 썩쓰리와 챌린저스는 오전 11시 맞대결을 벌인다. 이어 THE J와 저져스(오후 1시), 석산고와 스파이더(오후 3시)의 경기가 펼쳐진다.
12일 오전 9시에는 뉴욕야시장과 피지컬이 무등리그 첫 대결에 나선다.
파죽지세와 BFB가 오전 11시 경기에 나서고, 센프렌즈와 파트너즈의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된다. 뉴욕과 OA 우리가구는 오후 3시 무등리그 4강 마지막 한자리를 놓고 격돌한다.
준결승전은 19일에 진행된다. 26일에는 대회 우승컵을 놓고 '마지막 승부'가 펼쳐진다.

26일 오전 10시 광일리그 결승전이 치러지고, 오후 1시에는 무등리그 우승팀이 가려진다.
광일리그·무등리그 우승팀에는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가 주어진다.
각 리그 준우승팀에는 트로피와 상금 50만원이 돌아간다. 공동 3위에도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개인 시상도 이뤄진다.
우승팀 감독과 최우수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10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선수와 최우수심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함평 체육회가 주관하며, 전남도와 KIA 타이거즈가 후원을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오타니 멀티 홈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첫날. LA 다저스와 신시내티와의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에서 LA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6회 2점 홈런을 친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연합뉴스

“AI와 양궁의 만남...슈팅로봇과 색다른 대결 기대”

대한양궁협회 장영술 부회장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양궁대회 양궁으로 달아올랐던 열기 쪽~ 앞으로 2년 주기로 대회 개최 선수들 국가대표 발판 다지길

추석 연휴에도 광주 도심은 활시위 소리로 가득찬다.
지난 9월 세계양궁선수권과 장애인양궁선수권으로 달아올랐던 광주가 이번엔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2025'로 또 한번 뜨겁게 달궈진다.
순천 출신의 대한양궁협회 장영술 부회장은 이번 대회의 보이지 않는 기둥이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전체 조직을 기획하고 방향을 잡는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국가대표 감독 생활을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양궁에 쌓인 '애정'과 '노하우'는 남달랐다.
그는 이번 대회의 의미에 대해 "세계선수권은 나라별 대표들만 출전하는 무대이지만, 정몽구배는 더 많은 선수가 국가대표와 같은 꿈을 꾸도록 열어주는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본선 무대를 8강에서 16강으로 확대했다.
그는 "국내에서 묵묵히 훈련하는 선수들에게 상금과 기회를 주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참가 범위도 고등부 20명, 대학부 20



명, 실업팀 24명을 비롯해 국가대표와 상비군, 전년도 우승자까지 폭 넓게 열려있다.
장 부회장은 "세계선수권 무대에 서지 못한 선수들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며 "다음 세계선수권과 올림픽을 향한 동기를 심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광주 개최는 AI 도시와의 상징적 만남이기도 하다.
그는 "결승전 이후 대표팀 선수단과 슈팅 로봇이 맞붙는 이벤트 경기도 열린다. AI 도시 광주에서 로봇과 인간의 대결이 펼쳐져 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세계 양궁은 '전력 평준화' 흐름이 두드

러진다. 장 부회장은 그 이유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 지도자 54명의 역할과 경기 방식 변화를 꼽았다.
그는 "현재 해외에 진출한 한국 지도자가 54명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의 훈련법과 노하우를 전수해 각국 실력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는 경기 방식의 변화다.
장 부회장은 "예전에는 288발, 36발씩 많이 쏘며 꾸준함이 승부를 갈랐지만, 지금은 세 발 단위 세트제라 변별력이 줄었다. 이는 경기의 재미와 중계, 글로벌 확산을 위한 세계양궁연맹의 결정이지 한국을 견제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제로 디펙트' 훈련이다. 4년 뒤 올림픽을 대비해 무엇이 승부를 가를지 미리 준비한다. 기업이 미래 전략을 세우듯 양궁도 변화를 내다보고 대응한다"는 것이다.
작지만 강한 종목, 양궁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장 부회장은 "대한양궁협회는 규모는 작지만 사회를 리딩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학교 교육,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 양궁 보급 등 더 큰 틀에서 기여하고 싶다"고 비전을 이야기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 이 대회는 세계선수권과 마찬가지로 2년 주기로 열릴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 추석 연휴와 겹쳐 아쉬움도 있지만 광주 시민들에게는 특별한 명절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국가대표를 넘어 올림픽까지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첫 메이저 대회 우승한 광주서 상금왕 도전”

김제덕, 정몽구배 금 도전
“기회의 땅에서 나의 무대 만들 것”

'기회의 땅' 광주에서 양궁 스타 김제덕(예천군정)이 1억 상금에 도전한다.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가 1일 광주에서 개막했다.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리커브 종목 남녀 우승자에게 1억원의 상금이 돌아가는 총 5억 9600만원이 걸린 빅 이벤트다.
지난달 광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이저 대회 개인 첫 메달의 감격을 누렸던 김제덕은 이번에는 '상금왕'에 도전한다.
김제덕은 "광주에서 세계 선수권 끝난 지 몇 주 안 됐는데 또 느낌이 색다르다. 확실히 세계 양궁선수권 기간보다는 확실히 시원해졌다. 이제 가을 날씨가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다. 아직도 낮에는 햇빛이 뜨겁지만 그래도 조금 시원한 편이니가 좀 더 즐겁게 쏠 수 있을 것 같다"며 "세계선수권 메인 대회 끝난 이후에 소속팀에 복귀해서 시합하는 만큼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본선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우승 상금 1억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미소를 지었다.
광주는 김제덕에게 좋은 기억이 많은 곳이다. 김제덕은 국내 최강자들과의 경기에서 또 다른 추억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그는 "광주국제양궁장과 인연이 많다. 국가대표 선발전도 많이 했다. 그만큼 많이 시합해 보고 또 경쟁해 봤던 장소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집중력있는 승부를 예고했다.
1억이라는 목표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무대'를 만드는 것이다.
김제덕은 "상금 액수가 크지만 그것만 보고 시합



하는 게 아니다. 나의 무대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상금은 나중에 뭐따라오는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한여름을 지나 가을 길목에서 다시 광주를 찾은 김제덕은 이번 대회가 끝난 뒤에는 전국체전이라는 또 다른 무대를 위해 달리게 된다.
김제덕은 "세계선수권했던 장소에서 또 시합을 해 볼 수 있게 돼서 되새겨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왔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잘 준비해 왔기 때문에 광주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자신 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속된 일정에) 부담감이 없을 수는 없다. 부담감을 이겨내면서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선수의 역할이다. 양궁이라는 종목을 이야기할 때 김제덕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